

부산물 퇴비화...장성 잔디산업 제2의 도약

퇴비화 기술 재배농가 보급

처리비용만 年 100억원 절감

퇴비 판매 등 소득증대 기대

장성의 잔디 재배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잔디농사의 골칫거리인 ‘잔디 부산물’의 퇴비화에 성공한데 따른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잔디 부산물을 퇴비화하는데 성공한 이후 잔디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퇴비화 사업을 보급하면서 재배 농가들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6월 ‘미생물 실증시험’을 거쳐 단 시일(20일) 내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악취가 없는 잔디 퇴비 생산법을 개발한 바 있다.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로, 993 농가가 1670ha에 달하는 잔디 재배에 나서고 있다. 군도 잔디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는가 하면, 고



잔디 부산물이 퇴비로 쓰여지면서 잔디 재배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퇴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잔디 부산물. <장성군 제공>

품질 잔디 재배를 위해 대학교와 공동으로 ‘장성샛별’ ‘장성초록’이라는 잔디 품종까지 개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때문에 잔디 부산물 퇴비화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퇴비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잔디 퇴비의 경우 일본에서는 높은 가격(잔디퇴비 10kg에 22만원 상당)에 팔리고 있는데다, 잔디 퇴비를 구하려는 농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성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잔디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하는데 1t당 20만원이 넘는 만큼 연간 발생량(4만6760t)을 고려하면 100억원 가량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장성군 설명이다.

장성군은 최근 “잔디 재배 산업의 새 장이 열리게 됐다”며 퇴비화에 참여한 22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장성군은 매년 발생하는 잔디 부산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잔디는 수분이 많지 않고 잎이 억센 탓에 퇴비화가 쉽지 않아 대부분 농가에서는 그동안 부산물을 건조한 뒤 불법으로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산불발생 위험과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퇴비화 연구를 진행해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 올들어 2배 이상 늘어

한달 평균 180명 이용...3대로 증차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성에 도입된 콜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군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용률이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도입 첫 달인 지난해 4월 이용 횟수가 6회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9개월 간 710회에 이용자가 늘었다. 올해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612회에 달하는 등 이용률이 2배 이상 급증했다.

한 달 평균 180명 가량이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장성군은 콜택시 운행 뒤 수요가 늘면서 지난 2월 1대를 추가로 구매, 2대를 운행하며 지역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이달 1대를 증차기로 했다.

1·2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30%수준으로, 전남도 광역이동 지원센터(1899-1110)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수요를 감안, 운행 차량을 늘려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장성군 제공>

눈 구경 힘든 담양서 산타축제 연다는데...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X마스 마켓·캐럴 음악회 등 관광객 유치 성공 여부 관심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담양에서 겨울 산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담양군은 산타 축제를 내세워 겨울 관광객 유치에 나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양군은 오는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담양을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2017 담양산타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담양산타축제는 담양만의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개발하고 크리스마스 마켓 도시를 조성하는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하게 꾸며진다.

담양군은 막걸리를 제조하던 시절의 향수를 품은 해동주조장을 활용, ‘담빛길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산타축제와 연계한 겨울음악회, 해동문화학교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메타프로방스는 이국적 풍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조명, 대형크리스마스 트리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꾸미고 캐럴 음악회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전략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산타축제가 담양의 새로운 겨울 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겨울 관광을 선도할 산타축제의 비전을 제시할 주제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국제 차문화제 행사장 전경. 관람객들이 다양한 차 상품 등이 전시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10일까지 블렌딩 국제차문화제

화순은 1000여 농가가 전남 약용작물의 55%를 생산하는 한약초의 고장이며 다지(茶智), 다산(茶山) 등 차 관련 지명이 많아 예전 차 생산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화순이 이같은 점을 반영, 국제 차 문화제를 연다.

화순 블렌딩 국제차문화제가 7일 화순 하나음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막, 오는 10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문화제는 기능성 차의 본고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주자현다례를 비롯해 화순 작설차 홍보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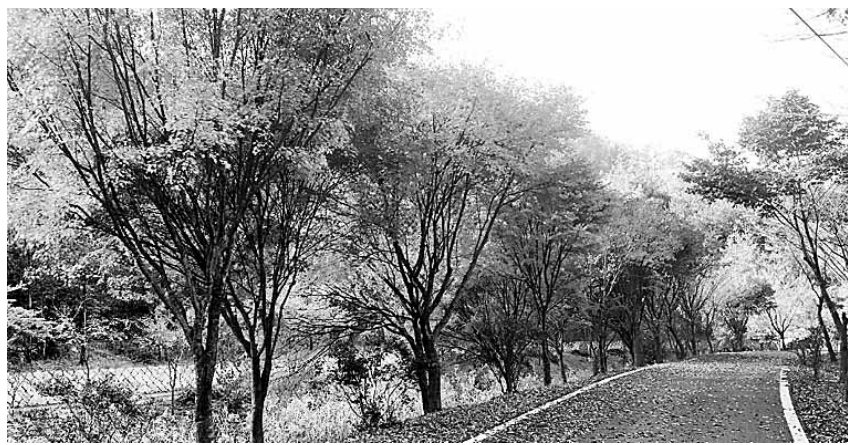
양 4국 차문화시연, 세계 블렌딩차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화순 블렌딩차와 한방차, 보성 녹차, 고흥 연화차, 원주 약차, 담양 꽃차, 장흥 떡차, 정읍 쌍화차 등 지역의 유명 차가 소개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중국, 대만, 스리랑카와 인도, 영국 등에서 선보이는 무이암차와 보이차, 홍차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화순군은 이번 문화제를 계기로 한약초바이오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서 한국 블렌딩의 메카로 발돋움 한다는 구상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오색 단풍으로 물든 한천 자연휴양림 전경.

<화순군 제공>

화순 백아산·한천 휴양림 단풍 여행객 북적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화순 백아산·한천 자연휴양림을 찾는 단풍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천 자연휴양림의 경우 천운산(해발 601m) 주 능선이 팔을 벌린 듯이 휴양림을 감싸인 곳에 위치해 무등산, 백아산 단풍 등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단풍나무로 이뤄진 4km의 단풍 터널은 가을 나들이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인 명소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도 백아산(해발

810m) 주 능선이 감싸고 있는 화석골 계곡의 휴양시설로, 백아산 하늘다리(길이 66m)에서 펼쳐지는 지리산, 백운산, 모후산 절경은 빼어나다.

등산로도 가파르지 않고 인근에 백아산 관광목장, 화순온천리조트 등이 있어 휴양지로 인기라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을 여행주간 동안 가족, 연인과 함께 화순 휴양림에서 소중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